



허달용 작 '새'

우리 민족은 역사의 고비마다 '아리랑'을 불렀다. 아리랑에는 민중들의 짙은 삶과 그리움, 애환이 깃들여 있다.

영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작곡가들로 구성된 '세계 최우수 곡 선정대회'에서 아리랑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족사의 애환과 끈질긴 생명력이 특유의 멜로디와 노랫말에 투영돼 있다는 방증이다.

광주에는 5월의 노래이자 '광주아리랑'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을 넘어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울림으로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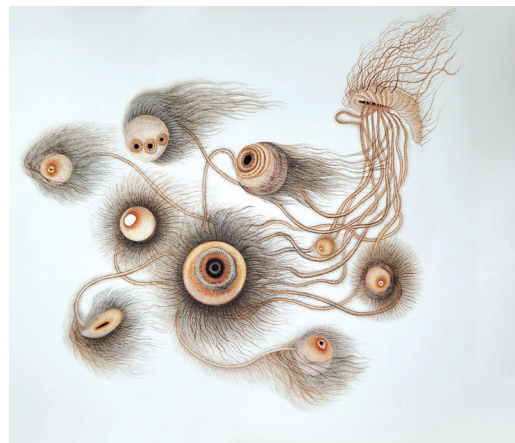
독일 또한 광주처럼 분단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다. 라이프치히에서도 1980년 광주와 유사한 시위가 벌어졌다. 동독(GDR) 정권에 항거하는 시위가 일어났던 것. 1989년 독일은 44년 만에 통일을 이루었고, 평화혁명을 기념하는 '빛의 축제'가 라히

프치히에서 매년 개최돼 왔다. 광주와 라이프치히의 시공간을 넘어 '민주정신'을 공유하고 있다.

'광주아리랑'을 모티브로 광주-라이프치히 교류전이 독일 현지에서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14일까지 독일 포템카 컨템포러리 아트 갤러리에서 열리는 '광주아리랑-들꽃에서 바람을 흠어진다'가 그것.

이번 교류전은 (사)한국문화예술포럼이 주최하고 포템카 컨템포러리 아트와 소촌아트팩토리가 주관, 광주시가 후원한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전으로 기획돼 민주와 인권, 평화로 대변되는 광주정신의 세계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에는 1980년 당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흥성민, 허달용, 리일천과 5월 광주의 후속세대 김설아 작가 총 4인이 출품했다. 5·18을 경험



김설아 작 '우리는 먼지 속을 기어갔다'

한 세대와 후속세대가 미술작품으로 조우해 민주와 평화의 의미를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먼저 흥성민 작가의 '전쟁을 멈춰라'는 붉은 글씨로 'STOP (the) WAR'라는 표현이 일종의 선전문구처럼 걸려 있다. 전쟁을 멈추라는 구호 아래 폭탄을 든 군인이 서 있는 모습은 사문 이질적이다. 해골 형상을 한 군인은 평화 수호자와 침략자

###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광주-라이프치히 교류' 전 14일까지 포템카 컨템포러리 아트갤러리... 12월 광주 전시

를 동시에 연상하게 만드는데 그 자체로도 혼성적인 두 겹 레이어(층)를 갖는 듯 하다. 이미지를 중첩해 고통의 연대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또 '오월 흰 대나무'는 민주투사들이 대숲 앞에서 호송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얗게 빛나는 형상이 꺾이지 않는 의로움과 기상을 드러낸다.

허달용 작가는 자연에 대한 진득한 관찰로 필름 컷을 연상케 하는 작품들을 보여준다. 한지에 수묵으로 채색한 '그곳'이 상징하는 지평은 암울하면서도 가혹하다. 형체가 불분명하고 명암이 대비를 이루는 '새'는 광주의 아픔을 그로테스크하게 드러낸다.

리일천 작가도 흑목의 미니멀함에 주목하는 작가다. 창조, 사랑에 대한 경의를 드러내는 작품들을 출품했는데, 반복되는 이미지들은 복제된 시물라

크르적 세계를 암시한다.

1983년생으로 유일한 5·18 후속세대 김설아 작가는 수묵과 먹 위주의 세 작가의 작품들과 달리 컬러풀한 게 특징이다. 실크와 잉크로 창작한 '우리는 먼지 속을 기어갔다'와 '무제'는 기묘한 오브제 형태처럼 보이는데, 아마나나 별레를 통해 반인류적 환경을 경고하는 것처럼 다가온다.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15일-30일) 광주 소촌아트팩토리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큐레이터인 장경화 박사는 "광주아리랑"인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공동체의 평화를 담은 노래로 과거시점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지향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행동"이라며 "공간적 개념은 광주는 물론 한반도 공동체로 아시아로 지구촌으로 확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어린왕자와 '내 별에 장미를 심다'

9일, 보성 대원사 어린왕자 선(禪)문화관 행사

'내 별에 장미를 심다.'

별과 장미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어린왕자'다.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스님)는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어린왕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어린왕자 선(禪)문화관이 그곳.

한국의 100대 아름다운 길에 선정된 '대원사가는 길'은 조금씩 가을에 접어들고 있다. 산 속 깊숙한 곳에 이르며 꽃처럼 피어난 어린왕자 선(禪)문화관을 만날 수 있다.

지난 2022년 전남사립문학관 1호로 지정된 이곳에는 1943년 발행된 '어린왕자' 번역 단행본을 비롯해 세계 100여개국 72개 언어로 발행된 도서 등 300점 자료가 소장돼 있다. 섹터주페리 작가실과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마다 '어린왕자 세미나 및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어린왕자 선문학관이 9월 별처럼 빛나는 작품이 탄생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내 별에 장미를 심다'를 연다.

오는 9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린

왕자 선문학관 상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인숙 아동문학가(문학박사)가 기획했다. 한국문인협회 보성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023년 지역문학관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역 문인 및 어린왕자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번 행사에는 순천 고흥 등 인근지역민들도 함께 할 예정이다. 면지에 어린왕자 삽화를 직접 그리고, 원하는 문구를 써 넣어 소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어린왕자' 속 여우의 말처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색채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행사는 2023년 10월 목포문학박람회와 연계해서도 진행된다. 2023년 9월 15일부터 목포문학관 일대에서 열리는 문학박람회에서도 어린왕자 선(禪)문학관을 만나볼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으로 면지 제작을 할 수 있게 한 것.

이번 행사를 기획한 양인숙 아동문학가는 "내 별에 장미를 심다"를 통해 프랑스의 대표 문학인 '어



어린왕자가 여행했던 행성과 별나라 여행을 모티브로 재현한 어린왕자 선(禪) 문화관.

(어린이 선문학관 제공)

린왕자'를 보성의 유서 깊은 대원사에서 만나볼 수 있다"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동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행사의 일환으로 '우물굿'을 진행하는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 부산 명물 '용왕굿·우물굿' 광주서 한 판

국립남도국악원 '부산고분도리걸림 초청공연' 9일 진악당

부산의 명물 용왕굿과 우물굿 등을 광주에서 감상하는 기회가 열린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은 '부산고분도리걸림 초청공연'을 오는 9일(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개최한다. 부산시 무형문화유산인 '고분도리(부산시 서구 대신동 옛 지명)'는 정월 초사흘날부터 대보름까지 파를 써서 행하던 '걸림' 풍물굿이다.

고분도리를 계승하고 있는 부산고분도리걸림보존회(이하 보존회)가 바다에 축원하는 별신굿 하나인 '용왕굿'을 보여준다. 무당이 물통이를 타고 방울을 흔들면서 바닷가에 나가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비는 굿놀이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존회가 기존 레퍼토리를 계승·발전시킨 '우물굿'도 이어진다.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에서 제단 역할을 맡았던 '우물(또는 샘)'에 사회통합을 기원하는 '샘제'로도 불리는 의의인데, 물이 잘 나오길 바라길 기원하는 치성(致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철룡굿, 뒤안굿 등으로도 불리는 '장독굿'은 식량을 저장하던 장독에 대고 평안과 축원을 비는 무속행사다. 전통적인 걸림치기 축원 중 하나로 성주굿, 마당놀이, 조왕굿과 함께 민간에서 행해져 왔다.

정우수 명인이 상쇠(행과리 짚이 중 지휘역)를 맡으며 강정수 명인이 장구를, 허인대 명인이 태평소를 연주한다. 이외 부산시 문화유산 보유자 및 회원 60여 명이 출연해 관객들을 위해 액플이굿을 들려준다.

무료 공연. 자세한 내용은 국악원 누리집 참조.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

## '별주부전-수궁 어벤저스'

광주시립창극단, 9~10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충신은 다양한 예술장르에서 고매한 모습으로 형상화돼 왔다. 예로부터 충신을 동물에 비유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동물이 별주부(자라)다.

영화 '어벤저스'처럼 불 속과 지상을 오가며 용궁을 수호하는 '영웅 별주부' 이야기가 찾아온다.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김규형)이 제59회 정기공연 '23 별주부전-수궁 어벤저스'를 오는 9-10일(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1974년 초연했던 김연수 작 '수궁가'를 원형으로 재창작했다.

원작에서는 토끼가 위난을 극복하는 괴와 기지를 중심으로 해학적 재담을 전개했던 반면, 이번 공연은 별주부 자라가 보여주는 충심을 초점화한다. 용왕이 병을 얻은 국난(國難)을 극복해 가는 충신 별

주부의 모습은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거북선을 떠올리게 한다.

알려진 대로 기존의 '수궁가'는 별주부가 용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간을 구하러 육지로 올라가며 펼쳐지는 이야기다. 별주부가 호랑이를 만나 큰 위기를 마주하지만 결국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한다. 간을 지상에 두고 왔다면 토끼가 잔꾀를 부리지만, '충성심'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번 무대에서는 별주부가 토끼의 술수를 간파한다.

김규형 예술감독은 "별주부의 모습을 보며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



이전 작품 '수궁가'에서 별주부가 세상에 나가 토끼를 용궁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장면. <광주시립창극단 제공>

## 역사 강사 최태성, 11일 전남도 동부청사서 강연

김육은 조선 후기의 명재상으로 '대동법'을 추진해 공반의 폐단을 시정하고 백성을 도란에서 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육의 리더십을 들 수 있는 강연이 열린다.

'최소한의 한국사'의 저자인 최태성 소장은 오는 11일(오후 1시) 전남도청 동부청사 대강당에서 강연을 한다. '위대한 리더십-조선의 경제가 김육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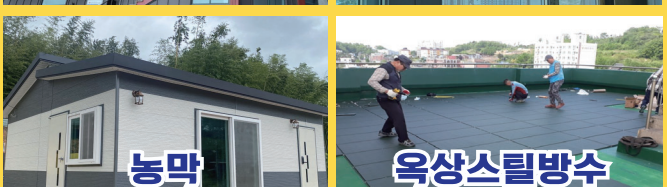
강연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일 전남도청 동부청사 순천 신대지구에 개청한 데 따른 기념의 의미도 담겨 있다.

별한한국사연구소 소장인 최 강사는 TV 프로그램 '만국견문록', '별거벗은세계사' 등에 출연하고 있다. 누구나 무료 참여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